



## 계파 나눠먹기 심각

퇴휴 스님, 정웅기 집행위원장, 2년차 조계종 집행부에 쓴소리

조계종 제33대 집행부가 11월 5일로 출범 2주년을 맞았다. 종단은 2주년 평가 간담회에서 '낙제점은 면한 활동'이라고 자평하면서도 승려노후복지 시행, 승가교육 현대화, 한국불교 세계화 등 치적을 앞세운 면이 없지 않았다. (본지 제861호 보도)

이에 대해 종단에 건전한 비판 의견을 견지해온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과 정웅기 불교 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의 의견을 정리했다.

"측근 중심의 인사와 계파간 나눠먹기 폐해가 심각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비판을 해야 하는 중앙종회도 무력화 됐다. 요란한 구호 속에서 사업을 추진했지만 성과는 미흡했다."

실천불교전국승가회 상임대표 퇴휴 스님은 본래 기능에 충실하지 못한 집행부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측근을 요직에 배치하고, 줄세우기를 시도하면서 권한이 중앙으로 지나치게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스님은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종단의 미래가 어둡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승려노후복지 실행과 승려 사후 재산 종단 출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민족문화수호를 외치며 추진했던 5대 결

사를 '권력형 동원 운동'으로 규정하고, 한계가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퇴휴 스님은 "집행부가 주도하는 운동방식으로는 자발성을 촉발시킬 수 없다. 결사 초기에 방향성을 제대로 못 잡더니 방향성이 점점 흔들리며 아직까지 구체적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구호만 난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스님은 그러나 집행부가 출범 초기의 불안정한 모습을 잘 극복하고 비교적 안정된 운영을 펼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하지만 대정부 관계에서 원칙 없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려움을 자초했다고 지적했다. 종단은 템플스테이 예산이 삭감되자 정부 인사의 산문 출입을 금지하며 '민족문화수호 결의대회'를 실시하며 대정부 강경책을 펼치다가 정부의 유화 제스처에 금방 기조를 변경했다.

퇴휴 스님은 집행부의 분발을 촉구했다. 스님은 "사고는 부장들이 치고 수습은 총무원장이 하는 불협화음이 33대 집행부 출범 초기에 많았다. 집행부가 자신들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수수방관하는 듯한 모습이 아직도 나타난다"고 말했다. 총무원장의 의지를 집행부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계획적 이익에 합몰돼 동력이 분산된다는 지적이다.

퇴휴 스님은 "지난 2년의 성적은

6점 정도 되는 것 같다. 적재적소에 훌륭한 인재를 선발해서 배치하고, 급권선거가 사라져야 한다. 세력 확산보다는 종단 발전을 위한 총무원장과 집행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웅기 불교시민사회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집행부가 청빈한 삶을 기대하는 불자들의 마음을 헤아리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정치와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불자나 신도들이 기대하는 바를 집행부가 잘 모르려는 것 같다. 불교 자주화에 대한 문제의식은 있으나 구체적인 시도를 못한 것 같아 아쉽다"고 말했다. 종교의 본래 가르침에 맞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미다. 그는 또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에 대한 관심과 배려에 총책이 부합하지는 않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웅기 집행위원장은 승려노후복지 시행과 결사추진본부 출범은 긍정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정 집행위원장은 "결사에서 불자들의 뜻을 잘 담고 있는지, 답안별 계획인지 점검해야 한다. 이것을 잘 담아내지 못하는 것은 불교계 전체의 역량과도 연관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체적으로 5점 정도의 평가를 내린다. 시도는 했지만 구체적인 성과도 없고 본질을 찾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떡' 하니 사랑합니다

조계사(주지 토진)가 11월 11일 배배로데이에 맞춰 잊기 쉬운 '농업인의 날'을 맞아 도농 교류를 위한 행사 '우리 떡하니 사랑합니다'를 마련했다. 행사는 농민들이 뿌리를 내리고 사는 땅(土)의 의미를 되살리고 도농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11시 11분 11초에 시작했다. 11(十一)은 토를 풀어쓴 형태를 지니고 있다. 조계사 주지 스님의 범명도 토진(土眞)이라 연관이 크다는 게 조계사측 설명이다. 토진 스님은 "떡을 써는 칼은 우리 농민의 시름을 씻어내는 부처님의 지혜일 것이다. 조계사가 농민들의 시름을 덜어내고, 농민의 날을 되찾아 오겠다"고 말했다.

글=박기범 기자 smile2@daum.net /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 "안철수와 새 정치 만드는 고민 중"

법륜 스님 與 조선의원 모임 '민본21' 강연서 밝혀

평화재단 이사장 법륜 스님(사진)이 한나라당 의원들과의 모임에서 "안철수 원장과 시대정신과 역사적 소명을 다하는 정치를 만드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혀 귀추가 주목된다.

법륜 스님은 11월 10일 한나라당 조선 의원 모임인 '민본21'에서 특강을 가졌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평화재단이 기획한 '청춘콘서트'가 안철수 열풍의 배경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스님을 초청했다.

법륜 스님은 강연에서 "평화통일과 양극화 해소가 우리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며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지지층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당파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스님은 "보수는 중도·진보를 진화해나가는 기획한 '청춘콘서트'가 안철수 열풍의 배경에 있었다는 판단에서 정치 현안 등에 대한 의견을 구하기 위해 스님을 초청했다. 법륜 스님은 강연에서 "평화통일과 양극화 해소가 우리시대의 가장 큰 과제"라며 "국가 개혁을 위해서는 지지층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당파와 정치적으로 무관심한 계층을 끌어안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862호 CONTENTS

종단	2
종책질의 두고 주먹다짐 금정산 터널공사 철회 결의 법흥 스님, 서울시장 공개 편지	
종합	3
참담선원장 율광 스님 수행자 프리미엄 없애라	
특별기획	5
디자인 템플	
종합	6
자정과 쇠신 결사 세미나	
동안거 결계 법어	7
현장속으로	11
논산 육군훈련소 법당 상량식	



법륜 스님의 신혼여행 12·13

## 결계는 죽는 가운데 살 길 찾는 일

조계종 100여 선원 등서 불기 2555년 동안거 결계

11월 10일(음력 10월 15일), 불기 2555년 동안거 입재법회가 전국의 선원·사찰 등에서 일제히 봉행됐다. 조계종 기준 2200여 수좌를 비롯한 전국 사찰의 스님과 신도들은 이날 입재식을 시작으로 안거기간 불퇴전의 용맹정전에 돌입했다.

조계종 종정 법전 스님은 동안거 결계 법어에서 "생(生)의 한 편에

엮매어 사(死)를 보지 못하거나 사(死)의 한 편에 엮매어 생(生)을 보지 못한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화두를 들고서 결계하는 남자라고 할 수 없을 것"이라며 "죽어도 제대로 죽기만 한다면 거기에 또 살길이 열리는 것이 이 공부길이다"라고 강조했다.

했다. 조계종립 송광사 방장 보성 스님은 법어에서 아만을 버릴 것을 강조했다. 스님은 "옛 사람의 말씀에 '아만을 갖고 공부하는 것은 십나물을 지고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다'고 했다. 고인의 가르침에 따라 아만부터 버리는 것으로 공부의 기초를 삼기 바란다"고 말했다.

덕숭총림 수석사 방장 설경 스님은 "보고 듣는 그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바로 여기에서 분명히 해 의심이 없으면 영원히 생사의 굴레에서 벗어나 고통은 없어지고 즐거움이 있게 될 것이다"라는 법어를 내렸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 스님은 "모든 마음을 놓아 버리고 그렇게 했다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으며 끝까지가 메아리를 울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법어를 내렸다.

영축총림 방장 원명 스님은 법어에서 "근본을 찾는다면 참 근본은 외면한 채 밖으로 치닫고 있다. 찾고자 애쓰는 그 생각부터 먼저 내려놓고 마음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말했다.

태고종 종정 해초 스님은 "불성은 당당하게 드러나는데 정에 집착하는 유정은 보이지 못한다. 만약 사람이 나타난 것 없음을 깨닫는다면 나와 부처의 얼굴이 무엇이 다르"고 법어를 내렸다.

관령사 3·7면 조동섭 기자

## 조계종지 현대적으로 어떻게 살릴까

23일 오후 2시 대토론회서

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회(위원장 자승)는 11월 23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한국불교교중흥을 위한 11월 대토론회를 개최했다.

"조계종지(曹溪宗旨)의 현대적 구현"을 주제로 열리는 행사에서는 학담 스님(대승사 주지)이 주제발제하

고 종광 스님(조계종 승가교육진흥위원장), 화랑 스님(동국대 교수), 설우 스님(진불선원장)이 토론자로 참석한다.

조계종 종헌 제2조는 "본종은 석가세존의 자각각타 각행원만(自覺覺他 覺行圓滿)한 근본교리를 奉體(봉체)하며 적지인심 건성성불 전법 도생함을 중지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동섭 기자 cestana@gmail.com



## 찬 덕 불 교

찬덕불교에서는 **KS케이블**을 사용하여 가장 안전하게 전문 기술인에 의해 직접 감독 시공합니다.

※ 이제는 법당 연등 설치도 버튼 하나로 해결하세요.

### 아름다운 등

팔각접등영가등

극락왕생 만월영가등

공 단 등

오색공단등

만 월 등

중 등

신상품 찬덕 LED 전구

LED 전구

1년 365일, 하루 6시간 사용 전기요금: 98원/1kwh (인동등 LED전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안산 월강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도선사      연등 자동 승강장치 \_ 흥은사

윤장대 인등      용주사 LED 인등      보급형 위패      고급형 위패

경기도 광주시 실촌읍 수양2리 261-6 / 전화: 031) 792-6288, 794-4055 / 팩스: 031) 794-6288  
www.chanduk.com      취급품목: 연등 · 주름등 · 전선시공 · 영구위패 · LED인등 · LED전구

※ LED 전구: ● 기존 전기요금의 10% 정도가 소요      ● 열 발산이 적어 화재의 위험성이 적음  
● 불빛이 사방으로 퍼져 화려한 밝기가 특징      ● 사찰에서 원하는 규격에 맞추어 제작해 드립니다